

행복을 나누는 한마당, 제12회 안산시 한글잔치 열려

지난 10월 23일 상록구청 시민홀에는 한껏 멋을 부린 어르신들이 자리 잡고 있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과 안산시, 안산시 평생학습관이 후원하는 제12회 안산시 한글잔치에 참석하는 주인공으로 본오·부곡·선부·초지 종합사회복지관과 단원구·상록구 노인복지관, 용신평생교육원, 안산시 평생학습관에서 성인 문해교육을 받는 어르신들이다.

8개 기관 어르신 300여 명과 외국인 30여 명이 참석한 이번 행사는 ‘문해, 위풍당당 삶을 노래하다’라는 주제의 시화 작품과 글맵시 부문에 대한 시상과 전시도 함께 진행되었다.

1부는 이춘숙 용신평생교육원 교감의 진행으로 오엑스 퀴즈로 시작되었다. 퀴즈에 참가한 어르신들은 알쏭달쏭한 퀴즈에 이리 저리 왔다 갔다 하며 맞고 틀리는 것에 관계없이 그 시간을 즐기는 모습이였다. 자리를 실내로 옮겨 안산시 평생학습관 난타 동아리 ‘두드림 & 나눔’의 공연을 관람하였고 이어 어르신 도전 골든벨이 시작되었다.

첫 번째 문제로 자음 **ㅁ**과 모음 **ㅛ**, 자음 **ㅈ**과 모음 **ㅓ**가 결합된 글자를 쓰세요~ 라는 사회자의 말에 참가자들의 손길이 바빠진다. 답판에는 ‘모자’, ‘모지’



등 다양한 답이 나왔고 정답인 ‘모자’를 제외하고는 모두 탈락하였다. 그동안 배운 교과서 범위 안에서 출제된 문제지만 그리 만만하지는 않다는 표정의 어르신들은 “그래도 어디 가서 이런 거 해보겠어~” 하시며 즐거운 표정이였다. 13명이 살아남은 골든벨이 끝나고 용신평생교육원의 국악 동아리 ‘추임새’와 하모니카 동아리 ‘하모랑 친구랑’의 축하공연이 이어졌다. 장롱 깊숙이 넣어둔 한복을 꺼내 입고 곱게 화장을 하고 무대에 오른 ‘추임새’회원들은 진도아리랑을 구성지게 불러 많은 박수를 받았다. 이어진 공연은 ‘하모랑 친구랑’이 연주하는 동요 ‘오빠생각’과 ‘반달’의 아름다운 선

율이 무대를 가득 채우자 자리에 앉아계신 어르신들은 박수로 화답했다. 자신과 같이 공부하는 학습자들이 꾸민 무대이기에 더욱 관심을 보이기도 했다.

용신평생교육원은 학습자들에게 다양한 학습기회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국악, 하모니카, 체조, 붓글씨, 걷기 동아리를 운영하고 있으며 대다수의 학습자들이 동아리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이날 축하무대에 선 동아리 회원들은 “난생 처음 무대에 서서 공연을 했다. 너무 떨렸지만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것 같다”라고 입을 모았다.

이어 선부종합사회복지관 남종수 부장의 진행으로 2부 시상식이 이어졌다. 총 453명이 제출한 작품 중 61명의 수상작품에 대한 축하와 격려의 시간이 되었고 시화 수상작품에 대한 낭송을 끝으로 늦은 나이에 배우는 기쁨을 만끽하는 어르신들의 잔치가 마무리되었다.

‘행복한 학습자, 더불어 성장하는 교사, 하나 되는 문해교육 공동체’를 지향하는 안산시 문해교육협의회와 늦은 공부로 삶의 활력을 찾는 어르신들의 어울림은 가을하늘보다 가을단풍보다 곱고 아름다웠다.

김은미 명예기자 <iami34@hanmail.net>

안산시평생학습관, ‘온고지신 인문학’에 이어 ‘지천명 아카데미’ 연다

고품격 인문학의 세계로 초대해 시민의 삶의 질 높여

안산시평생학습관은 오는 11월 6일부터 12월 4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에 ‘지천명(知天命) 아카데미’를 연다.

‘지천명 아카데미’는 100세 시대, 노년의 깊이 있는 삶에 대한 명품강연을 제공하고자 다양한 분야의 성공적인 인생 2막을 보내고 있는 명사들을 초청해 진행한다.

11월 6일 김정운 문화심리학 박사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 11월 13일 조윤범 바이올리니스트와 파르티엑스의 클래식 공연 ‘영원한 청춘, 클래식에 빠지다’, 11월 20일 강창희 트러스트연금교육포럼 대표의 ‘100세 시대 인생설계와 자산관리’, 11월 27일 이경서 前 장안대 총장의 ‘맛있는 삶의 레시피’, 12월 4일에는 문숙 자연치유사가 ‘자연치유로 건강하고 아름다운 삶’을 주제로 강연을 한다.

평생학습관은 지난 8월 28일부터 10월 23일까지 ‘온고지신(溫故知新) 인문학’을 진행해 중장년층 시민으로부터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한국 대표 지성인 천진기, 손철주, 고미숙의 인문학 강의는 민속문화, 회화, 고전문학 속에 녹아나는 우리 혼(魂)의 실체를 보여주며 고전문화를 통해 현대를 살아가는 지혜를 터득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 해주었다.

천진기 국립민속박물관장은 한국의 역사와 문화와 열두 띠 동물에 얽힌 이야기를 들려주며 안산의 역사와 문화를 천천히 깊고 즐겁게 읽기를 권유한다. 그렇게 “안산을 스토리텔링하는 것이 곧 우주질서의 안녕을 위한 길”이라고 강조한다.

손철주 미술평론가는 단원 김홍도, 표암 강세황, 능호관 이인상, 해원 신윤복의 그림의 깊이 있는 해석으로 시민과 소통했다. 김홍도의 작품에서 ‘손끝에 남은 향기’가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 화두를 던진 손철주 평론가는 신윤복의 그림에 숨은 이야기를 들려주며 시대를 꿰뚫는 ‘해원의 비틀기와 꼬집기’를 유쾌하게 풀어냈다. 고미숙 고전평론가는 ‘임궫정’과 ‘열하일기’를 풍자하며 길 위의 인문학을 통해 진정한 자

유인으로서의 삶을 누리자는 메시지를 전했다.

온고지신 강의를 빠짐없이 수강한 진성숙(54세, 초지동)씨는 “멀리 가지 않고 유명 강사들의 강의를 편하게 들을 수 있어서 좋았다. 옛그림의 철학을 해학으로 맛깔스럽게 풀어낸 손철주 평론가의 강의가 무척 재미있었고 인상적이었다”고 했다.

평생학습관 관계자는 “10주 동안 빠짐없이 강의를 듣는 시민들의 열정과, 강사와 호흡하는 청중의 수준이 놀랍다. 안산시민의 호응을 보며 서둘러 지천명 아카데미를 추진했다”며 “매주 목요일은 평생학습관에서 뜻 깊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앞으로도 품격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 문의 : 안산시평생학습관 ☎ 031-409-1877 |

신선영 명예기자 <woghkah@hanmail.net>